

온라인서 희망 과목 듣는다...광주 고교 시범도입

광주시교육청, 3월부터 '공립 온라인 학교'...시간제로 과목 이수 "선택권 보장...다양한 실력 키우는 광주형 미래교육 모델 될 것"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고교생 대상 공립 '빛고를 온라인학교'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이 학교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새로운 개념의 학교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빛고를 온라인학교는 2021년 광주시교육청이 최초로 제안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안한 '공립 온라인학교' 모델이 모태다. 지난해 9월 교육부 시범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

돼 광주를 비롯한 대구, 인천, 경남 등 총 4개 교육청이 시범 운영 기관으로 정해졌다. 온라인학교는 소속 학생 없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시간제 수업을 제공한다.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오는 9월 정식 개교할 예정이다. 공립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진행한다. 온라인학교에 배치된 교사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의 맞춤형 수업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희망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다. 재학중인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면, 학교장 승인을 받아 온라인 교육으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이 있어도 온라인학교에 과목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9월 정식 개교를 위해 광주시 남구에 있는 옛 광주과학고 기숙사동을 개축, 디지털 기반 최신 원격교육 인프라 설비를 갖춘 계획이다. 교명 공모, 학교 설립을 위한 조례 개정, 시설 공사 등도 하고 있다. 3월부터 시작하는 시범 운영에 맞춰 온라인학교 교사 6명을 선발했고 교육과정도 편성하고 있다. 선발된 교사는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인 운남

고 임시 교무실에서 생활하면서 거점센터·스튜디오 등을 활용해 수업한다. 온라인학교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이뤄진다. 과목 개설 및 운영, 평가·기록 등 기본적인 운영 방식은 현재 공동교육과정 기준을 따른다. 지필평가는 등교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행평가는 원격수업 또는 대면으로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해 평가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온라인학교는 학생 개별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며 "이는 광주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광주형 미래교육 모델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24.9명 광주교육청, 한국어학급 신설 등

광주시교육청이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4.9명으로 확정하고 2023학년도 신입생 배치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국·공·사립 91개 중학교의 일반 학급은 1711개, 특수학급 70개로 구성했으며 다문화학생 밀집 중학교에 한국어학급 3학급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수는 1만4577명으로 지난해 대비 768명 증가했다. 반면 전체 중학교 학생 수는 타 지역 전학 등의 이유로 지난해 대비 900여명 감소한 4만 2613명이다. 중학교 전체 학급당 학생 수는 24.9명으로 확정됐다. 중학교 신입생 학교 배정은 27일 동·서부교육지원청 누리집을 통해 각각 발표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원로 등이 24일 광주YMCA에서 열린 '민주가족 합동세배' 행사에서 세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다시 민주주의...광주정신으로 화합하는 한 해 되길”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원로 등 민주가족 3년만에 합동세배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는 24일 광주시 동구 광주YMCA에서 3년만에 '제25회 민주가족 합동세배'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민주가족 합동세배는 매년 설 연휴 마지막 날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원로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합동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누는 행사다. 이날 행사는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와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했으며, 5월 3단체(5·18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제

단, 4·19혁명공로자회 광주호서지부, 6·3동지회, 민청학련동지회 등 23개 단체가 참여했다. 올해는 3년만에 열리는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돼 20여년 간 진행돼 왔으나, 지난 2021년, 2022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여파로 전면 취소됐다. 행사 주제는 '다시 민주주의'로, 참가자들은 새해 덕담과 세배 뿐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한반도 평화실현, 기후위기 극복 등 메시지를 함께 나눴다.

또 지난해 5월 별세한 고(故) 정동년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에게 초상화를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초상화는 5·18유공자이자 화백인 김상집(사)광주전남6월항쟁 이사장이 그렸다. 김승원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이사는 "최근 5·18 역사 왜곡과 탄압은 물론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와 한반도 전쟁 위협까지 잇따르는 등 엄중한 시국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화운동 선배들이 지켜온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광주정신으로 대동세상을 이루고 화합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모국 캄보디아 민주화 촉구”

'촛불당' 한국지부·재한 캄보디아인, 광주에서 집회 훈센 총리 장기집권 규탄·택세타 부총재 석방 요구 등

재한 캄보디아인들이 자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캄보디아 최대 야당인 '촛불당' 한국지부는 22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훈센 총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은 광주뿐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 30여명이 모여 자국 훈센 총리의 38년 장기 집권을 규탄하고 택세타 촛불당 부총재의 석방을 요구했다. 택세타 부총재는 지난 5·12일 한국을 방문하고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귀국했으나, 지난 16일 현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택세타 부총재는 5·18민주묘지 참배 당시 "민주화 투쟁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한국 영웅들을 추모하기 위해 왔다"며 "숭고한 희생의 가치에 경의를 표하며,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투쟁의 롤 모델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회신고, 통역 등 도움을 준 한국인 장승기 이주민종합지원센터 실장은 "광주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민주화 '롤 모델'로서 상징적인 도시라 이곳에서 집회를 열게 됐다"며 "광주 5·18민주화운동 열사들과 같은 심정으로 자국의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남구, 둘째부터 다자녀 혜택

시설·프로그램 이용료 등 할인

올해부터 광주시 남구에 주소지를 둔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이 늘어난다. 광주시 남구는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지원 범위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또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세대원 중 만 13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자녀 2명만 있어도 기존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제공됐던 남구 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50%를 감면 받는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할 시 이용료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장남감도서관의 연회비 2만원도 면제된다. 이 외에도 다목적체육관, 봉선 테니스장, 승촌 게이트볼장 등 남구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의 3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개정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는게 남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남구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대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절찬 판매중

이방인

이 기원 옮김

문이당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